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정서지능과 정서조절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f Abused Children and General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 Regulation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최 지 경*

교 수 한 유 진**

Dept. of Child Studies, Myongji Univ.

Doctoral Course : Choi, Ji-Kyung

Professor : Han, You-J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motional ability between abused children and general children by comparing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control. Participants were 17 abused children who had been separated from their abusers and 17 general children, all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answers to the questionnaire items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ituations of emotional motivation were analyzed by Mann-Whitney U as a study too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abused children and general childre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bused children received lower scores than general children when it came to their emotional recognition, emotional expression, empathy, and emotional regulation as a subordinate scope of emotional intelligence.

Second, the difference of emotional regulation strategy between abused children and general childre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bused children presented negative responses and less frequently used positive strategy, inhibitory avoidance strategy and alternative strategy than general children.

Third, the difference of emotional regulation motivation between abused children and general childre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bused children presented less prosocial motivation, motivation of self-preservation and normative motivation than general children.

▲주요어(Key Words) : 학대받은 아동(abused children),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I. 서론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 연구는 신체적 학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체적인 후유증(Kempe, 1962)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

되어 점차 다른 유형의 학대를 포함하는 연구로 변화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학대의 후유증으로 공격성, 위축, 좌절, 정서적 부적응, 반사회적 행동, 심한 애착(Main & Goldwyn, 1984; Hart, Germain, & Brassard, 1987)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학대받은 아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Choi, 1989; Kaufman & Cicchetti, 1989;

* 주 저 자 : 최지경 (E-mail : 03child@hanmail.net)

** 교신저자 : 한유진 (E-mail : yjhan@mju.ac.kr)

Straus, 1991; Kim, 1993; Lopez & Heffer, 1998)고 주장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을 유발하는 대처방식과 관련(Egeland, Breitenbucher, & Rosenberg, 1980; Straus, 1991)되어 학대받은 아동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 아동의 정서적 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정서적 능력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Kurtines, 1989; Goleman, 1995; Moon, 1996; Han, 2004)고 밝히고 있다. 정서는 아동의 성격에서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다른 심리과정들을 통합하고 조직하는 핵심적인 성분(Pervin, 1996)이며 정서적 능력은 대인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도록 적절하게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Kurtines, 1989)을 하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적 능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어왔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아동의 정서적 능력을 강조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Salovey and Mayer(1990)는 정서적 능력의 하위영역인 인식, 표현, 활용 그리고 조절을 포함하는 정서지능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정서지능은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타인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Mavroveli et al., 2007)로써 아동의 정서지능이 적절히 발달하지 못하면 또래에게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Goleman, 1995). 또한 정서지능은 대인관계 뿐 아니라 학업성취와 더불어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도 관련(Salovey & Mayer, 1990)되어 인생의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요한 정서지능은 특히 5세에서 12세 사이에 빠르게 발달하여 양가적인 상황을 평가하며 강한 정서를 조절하고 조절된 정서를 표현하는 등의 높은 차원의 능력을(Saarni, Mumme, & Campos, 1998)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 발생 건 수 중 높은 비중(50.6%)이 정서지능이 빠르게 발달하는 5세에서 12세 발생한다(보건복지부, 2011)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야할 부분이다.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이 부모(83.1%)라는 점이다(보건복지부, 2011). 부모는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정서를 가정 외의 상황에서 관련지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Salovey & Mayer, 1990). 아동의 정서 발달이 부모자녀관계 속에서 시작(Salovey & Mayer, 1996)되기 때문에 부모에 의한 학대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아동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에게 받은 학대로 인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아동에 비해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적 능력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

면 학대받은 아동들이 일반 아동에 비해 표정에 나타난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지각하는 경향이 있다(Pollak et al., 2000; Kim, 2009)고 하였다. 또한 Hwang(2006)은 일반아동 중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을 선별한 뒤 학대 유형별로 자기인식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자기정서인식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적 학대에서는 자기인식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능력에 대한 국내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적은 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서적 능력의 일부에 초점은 맞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대받은 아동의 전반적인 정서적 능력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Hwang(2006)은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자기인식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일반아동 중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심각한 신체 학대의 경험이 없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를 연구 할 때 일반아동 중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의 제한점이 나타나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학대받은 아동들의 정서적 능력이 일반아동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으나 아동의 정서적 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점검하고 그 차이를 변별하여 생각한 뒤 행동하는데서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총체적인 능력(Salovey & Mayer, 1990)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학대받은 아동의 전반적인 정서적 능력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대로 인해 아동의 정서적 능력이 얼마나 저해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그들의 정서적 능력을 확인하는 기초연구를 하고자 한다.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지능을 측정하여 전반적인 정서적 능력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능력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지능의 하위 영역 중 정서조절은 실제 느낀 정서와 관계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 정서반응으로 표현하는 능력(Saarni, 1984; Underwood, Coie, & Herbsman, 1992; Davis, 1996)으로 아동이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인(Cassidy et al., 1992; Hubbard & Coie, 1994; Underwood, 1997; Hwang, 1999; Kwon, 2002; Han, 2005; Han, 2006)이며 정서조절을 통해 행동문제가 감소(Hwang, 1999)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으로 정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부족한 아동들은 장기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일시적인 정서 경감을 위해 부적절

하게 대처(Runtz & Schallow, 1997)하며 부모에게 학대 받은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정서를 기능적으로 또는 상황에 맞게 조절하지 못하여 역기능적으로 반응(Shields & Cicchetti, 1998)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아동이 실제 상황에서 정서를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쳐 부적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 아동의 정서조절에 관한 국내연구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서조절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Lim, 2002; Han, 2004; Han, 2006; Lee & Moon, 2008; Jang & Lee, 2011)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조절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는 정서조절프로그램(Park, 2008)과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정서조절을 살펴보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대받은 아동이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능력이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상황에서 어떻게 정서를 활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Moon(1996)은 정서활용이라고 구분하여 정서지능검사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정서지능검사의 다른 하위 영역들이 5점 Likert식 척도인 것과는 다르게 정서활용의 측정은 두 가지 활용방법을 제시한 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하는 질문지의 편향성이라는 제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질문지의 특성 상 학대받은 아동이 정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아동의 정서조절을 살펴본 연구들 중 질문지를 사용하여 양적으로 측정(Lim, 2002; Lim & Park, 2002; Lee & Moon, 2008; Jang & Lee, 2011)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술하였으나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이며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므로 면접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얻고자 한다. 이에 아동을 직접 면접하여 정서유발상황을 제시하고 아동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정서를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 Han(2004)의 정서조절 연구도구와 절차를 토대로 조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의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정서지능을 비교하여 정서적 능력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실제 정서유발상황에서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여 활용하는지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지능 및 정서조절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에게 나타나는 정서 및 행동 문제의 개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조절전략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1]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조절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학대받은 아동

서울시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과 영남지역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곳, 총 4곳에 신고접수 되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로 그룹홈에 입소한 아동 16명, 친인척가정에서 보호하는 아동 1명으로 모두 행위자와 격리보호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보호기간은 1년 미만이며 학대유형은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43.3%) 중복학대(보건복지부, 2011)로 제한하였으며 중복학대 중 성학대가 포함된 아동을 제외하였다.

성별은 남자 8명, 여자 9명으로 학년은 1학년 3명, 2학년 5명, 3학년 2명, 4학년 2명, 5학년 4명, 6학년 1명이었다.

2) 일반아동

경기도 A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대경험 외에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과 관련된 변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친부모 둘 모두와 함께 동거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을 통해 학대경험이 없는 아동들을 선별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집단과 matching하여 연령과 성을 동일하게 하여 17명을 선정하였다.

2. 연구도구

정서지능질문지 통해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적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정서유발상황에서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여 활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1) 정서지능

정서지능은 Moon(1996)이 정서지능의 초기 모형에 입각하여 제작한 정서지능검사 고학년용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의 4가지 영역의 37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5점 Likert 척도로서 하위 영역별 문항의 수와 예

Table 1. Contents of Emotional Regulation as Episode of Emotional Motivation

| | Emotional Category | Episode of Emotional Motivation |
|-------------|--------------------|--|
| Situation 1 | Negative Emotion | To be heard that a friend tell my secrets to the other. 친구가 자신의 비밀을 몰래 다른 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됨. |
| Situation 2 | Positive Emotion | I get 100points on the math test but a friend falls a lot.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는데 옆의 친구는 점수가 많이 떨어짐. |
| Situation 3 | Negative Emotion | I give birthday gift to a friend but he or she doesn't like it. 친구 생일에 정성껏 만든 선물을 주었는데 친구가 맘에 들어 하지 않음. |
| Situation 4 | Positive Emotion | I am selected as a representative player after competition with a friend. 한명만 대표선수가 되는 시합에서 친구를 이기고 내가 선수로 선발됨. |
| Situation 5 | Negative Emotion | I see a friend carry the same shoe pouch as I lost. 내가 잃어버린 신발주머니와 같은 것을 들고 있는 아이를 봄. |
| Situation 6 | Positive Emotion | I win the prize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전교생 앞에서 나만 행운 추첨에 당첨됨. |
| Situation 7 | Negative Emotion | My friends laugh when I fall down with a food tray. 급식을 들고 오다가 넘어졌는데 친구들이 웃으며 쳐다봄. |
| Situation 8 | Positive Emotion | I see a friend bullying me fall over a stone. 나를 괴롭히던 친구가 운동장에서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봄. |

는 다음과 같다. 정서인식은 '나는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다.' 등 8문항, 정서표현은 길에서 평소 좋아하는 선생님을 보았을 때, 나는 속으로는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등 7문항, 감정이입 '울면서 학교에 가는 아이를 보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등 7문항, 정서조절 '친구가 울 때, 나는 친구의 기분을 바꾸어 주려고 노력한다.' 등 15문항이다. 신뢰도는 정서인식 .78, 정서표현 .69, 감정이입 .72, 정서조절 .84이다.

2) 정서조절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Saarni, 1979; Gnepp & Hess, 1986; Underwood, Coie, & Herbsman, 1992)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제작한 Han(2004)의 연구도구를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에게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동이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과 동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적정서를 유발하는 상황 4개와 부적정서를 유발하는 상황 4개로 총 8개의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상황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려진 삽화를 함께 제시하였다. 각 상황을 들려주고 질문을 통해 아동이 정서조절전략과 동기를 확인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상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예 : 지금 어떤 상황이니?)을 추가하였다. 아동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면 적절한 정서를 느끼는지 확인하는 질문(예 : 기분이 어떤 것 같니?)을 하고 난 뒤 정서조절전략을 묻는 질문(예: 만약 ○○라면 어떻게 하겠니?)과 동기를 묻는 질문(왜 그렇게 하겠니?)을

하여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한다. 각 상황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2차례 예비조사를 통하여 연구도구 및 절차를 수정·보완하였다. 아동들 중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어 상황을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추가로 구성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상황이 묘사된 삽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연구도구를 보완하였다. 단, 삽화 속 인물의 눈, 코, 입을 그려 놓지 않아 인물의 표정을 통해 정서를 추측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정서유발상황 내용 중 아동을 '너'라고 지칭하는 것 보다 대상 아동의 이름을 직접 넣어서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정이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야기의 앞부분과 질문에 아동의 이름을 넣어 불러주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10개 정서유발상황 중 1개 상황에서 정서조절동기를 '선생님이니까'라는 대상 인물의 권위에 의해 정서조절을 하는 응답이 주로 나타난 상황은 또래 간의 갈등을 다룬 9개의 정서유발상황들과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정서를 조절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상황은 제외하였다.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의 상황을 동일한 수로 구성하기 위하여 부적정서를 1개 제외하여 총 8개의 상황내용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Table 2. Category, Definition and Exemple of Answer for Strategy of Emotional Regulation and Inappropriate Response

| Category | Definition | Exemple of Answer |
|----------------------------------|---|--|
| Strategy of Emotional Regulation | Positive Strategy To regulate verbal statement for regulating emotion. To change facial expression. | To express as no anger. 화나지 않은 것처럼 표정을 짓는다. |
| | Inhibitory Avoidance Strategy To regulate behavior and avoid reaction immediatel. | To keep still. 가만히 있다. To pretend not to know. 모른 척 한다. |
| | Alternative Strategy To participate alternative action as emotional regulation. | To talk with other friends 다른 친구와 이야기한다. |
| Inappropriate Response | Out of above categories due to no use of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 To strike with a clenched fist. 주먹으로 때린다. To throw objects with delight. 좋아서 물건을 집어던진다. |

Table 3. Category, Definition and Exemple of Answer for Emotional Regulation Motivation

| Category | Definition | Exemple of Answer |
|---------------------------------|---|---|
| Emotional regulation Motivation | Prosocial Motivation Motivation of protection and keeping for relationship | Because friend was disappointed and sad. 친구가 실망할까봐, 친구가 슬플까봐. |
| | Motivation of Self-Peservation Motivation to avoid negative result for keeping self-esteem | Because friends tease me as a strange kid. 이상한 아이라고 놀릴 것 같아서. |
| | Normative Motivation Motivation of social norm and rule | Because teasing friends was bad behavior. 친구를 놀리는 것은 나쁜 행동이므로. |
| | Inappropriate Motivation Out of above cetegories due to no use of motivation for emotional regulation. | Due to mocking me. 날 보고 비웃으니까. |

2) 본 조사

본 조사는 학대받은 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기관 4곳과 일반아동이 다니는 경기도에 소재의 성당 활동실에서 1:1면접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정서지능 질문지를 아동이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의 수가 적어 정서지능 질문지를 고학년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학년 아동과 학대받은 아동 중 글씨를 완전히 읽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연구자가 읽어주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정서지능질문지를 작성한 뒤 연구자와 개별 면접을 통해 정서조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학대받은 아동은 연구자가 직접 면접하였으며 일반아동은 연구자와 아동학 훈련된 석사 과정생 1인이 함께 면접하였다. 면접을 통해 정서조절의 정서유발상황을 들려주고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반응은 면접자가 기록하였다. 아동의 응답내용을 녹음하여 면접자가 기록한 내용과 함께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대받은 아동과 일

반아동의 정서지능과 정서조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8.0로 통계처리 하였다.

1) 정서지능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의 전반적인 정서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입, 정서조절로 구분하여 Mann-Whitney U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2) 정서조절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 아동 비교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알아보기로 선형연구(Underwood, Coie, & Herbsman, 1992)를 참고하여 Han(2004)이 분석한 기준을 기초로 하여 정서조절전략과 정서조절동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정서조절전략을 묻는 질문(예: 만약 ○○라면 어떻게 하겠니?)에 대한 응답과 정서조절동기를 묻는 질문(왜 그렇게 하겠니?)에 응답한 내용들을 분석하여 구분하였다.

정서조절전략에 대하여 자유롭게 응답한 내용들을 적극적 전략, 회피억제전략, 대안추구전략으로 범주화하였다. 그

러나 아동들의 응답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어떠한 전략도 사용하지 않아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반응들이 나타나 이를 부적절한 반응이라는 범주를 추가하여 <Table 2>와 같이 구분하였다.

또한 정서조절동기는 친사회적 동기, 자기 보호적 동기, 규범적 동기, 부적절한 동기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지 않아 정서조절동기로 볼 수 없는 응답은 부적절한 동기라는 범주를 추가하여 <Table 3>과 같이 구분하였다.

아동학 박사 1인과 아동학 박사수료 1인의 두 평정자에게 아동이 응답한 내용을 주고 각자 범주에 맞게 분류하도록 하였다. 두 평정자는 94%의 일치도를 보였으며, 불일치된 내용은 두 평정자의 협의과정을 거쳤다. 평정을 거친 정서조절 전략과 정서조절동기는 Mann-Whitney U 검정으로 통계 처리하고 빈도와 반응내용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정서지능

<Table 4>와 같이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을 Mann-Whitney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정서인식($Z=-3.229$, $p<.01$), 정서표현($Z=-2.884$, $p<.01$), 감정이입($Z=-2.884$, $p<.05$), 정서조절($Z=-2.418$, $p<.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 아동에 비해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지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서조절

1) 정서조절전략

<Table 5>와 같이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조절 전략사용을 Mann-Whitney U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적극적

Table 4. Comparison of Emotional Intelligence as Abused Children and General Children

| Category | | N | Mean Rank | Rank Sume | Mann-Whitney U | Z |
|-----------------------|------------------|----|-----------|-----------|----------------|----------|
| Emotional Recognition | Abused Children | 17 | 12.00 | 204.00 | 51.00 | -3.229** |
| | General Children | 17 | 23.00 | 391.00 | | |
| Emotional Expression | Abused Children | 17 | 12.59 | 214.00 | 61.00 | -2.884** |
| | General Children | 17 | 22.41 | 381.00 | | |
| Empathy | Abused Children | 17 | 13.38 | 227.50 | 74.50 | -2.418* |
| | General Children | 17 | 21.62 | 367.50 | | |
| Emotional Regulation | Abused Children | 17 | 12.74 | 216.50 | 63.50 | -2.793** |
| | General Children | 17 | 22.26 | 378.50 | | |

* $p < .05$, ** $p < .01$

Table 5. Comparison of Emotional Regulation Strategy and Inappropriate Response as Abused Children and General Children

| 구분 Category | | N | Mean Rank | Rank Sume | Mann-Whitney U | Z |
|-------------------------------|------------------|----|-----------|-----------|----------------|----------|
| Positive Strategy | Abused Children | 17 | 9.68 | 164.50 | 11.50 | -4.62*** |
| | General Children | 17 | 25.32 | 430.50 | | |
| Inhibitory Avoidance Strategy | Abused Children | 17 | 13.15 | 223.50 | 70.50 | -2.90** |
| | General Children | 17 | 21.85 | 371.50 | | |
| Alternative Strategy | Abused Children | 17 | 14.32 | 243.50 | 90.50 | -2.51* |
| | General Children | 17 | 20.68 | 351.50 | | |
| Inappropriate response | Abused Children | 17 | 25.76 | 438.00 | 4.00 | -4.94*** |
| | General Children | 17 | 9.24 | 157.00 | |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 Frequency of Emotional Regulation Strategy and Inappropriate Response

(N=17, Unit: person, %)

| | Positive Strategy | | Inhibitory Avoidance Strategy | | Alternative Strategy | | Inappropriate response | |
|-------------|-------------------|------------------|-------------------------------|------------------|----------------------|------------------|------------------------|------------------|
| | Abused Children | General Children | Abused Children | General Children | Abused Children | General Children | Abused Children | General Children |
| Situation 1 | 2(11.76) | 12(70.59) | | 1(5.88) | | | 15(88.24) | 4(23.53) |
| Situation 2 | 7(41.18) | 15(88.24) | | 1(5.88) | | 1(5.88) | 10(58.82) | |
| Situation 3 | 1(5.88) | 9(52.94) | 1(5.88) | 8(47.06) | 1(5.88) | | 14(82.35) | |
| Situation 4 | 3(17.65) | 17(100.0) | | | | | 14(82.35) | |
| Situation 5 | 5(29.41) | 16(94.12) | | | | | 12(70.59) | 1(5.88) |
| Situation 6 | | 2(11.76) | | 10(58.82) | | 4(23.53) | 17(100.0) | 1(5.88) |
| Situation 7 | 6(35.29) | 10(58.82) | 1(5.88) | | | 7(41.18) | 10(58.82) | |
| Situation 8 | 7(41.18) | 12(70.59) | 1(5.88) | 3(17.65) | | 1(5.88) | 9(52.94) | 1(5.88) |
| Total | 31(22.79) | 93(68.38) | 3(2.21) | 23(16.91) | 1(0.74) | 13(9.56) | 101(74.26) | 7(5.15) |

Table 7. Example for Inappropriate Reaction of Abused Children

| | Situ-ation | Offensive and forceful reaction | Reaction of real emotion without emotional control | Reaction of revenge | Inappropriate reaction |
|------------------|------------|--|---|---|---|
| Negative Emotion | 1 | I strike you with a clenched fist. '주먹으로 때릴 거야' To cover her/his mouth not to do. '하지 말라고 입을 막는다' | To answer with disappointed voice. '실망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 To step on with friends. '애들을 불러서 밟아준다' | |
| | 3 | To complain why to do that. '왜 그러냐고 따진다' | | To screw over later. '나중에 골탕 먹인다' To break relationship. '절교 한다' | |
| | 5 | To hit them and say 'why stole.' '왜 훔쳤냐고 하면서 때리고 온다' To say 'back them.' '당장 내놓으라고 한다' To take away. '빼어온다.' | | | |
| Positive Emotion | 7 | Shout not to see. '보지 말라고 소리 지른다' | To anger. '화를 낸다' To get irritated. '짜증낸다' | | |
| | 2 | | Shout with 'Wow.' '앗싸! 소리 지른다' To throw things with pleasure. '좋아서 물건을 집어 던지겠다' | | To change test paper with a friend. '친구와 시험지를 바꿔주겠다' |
| | 4 | | To jump with pleasure. '좋아서 팔짝팔짝 뛰다' To cheer up. '환호성을 지른다' To give cheers with win. '이겼다고 만세한다' | | To ask teacher to let friend go out. '귀찮으니깐 선생님에게 친구가 나가게 해달라고 한다' |
| | 6 | | To take promptly with pleasure. '좋아서 빨리 받는다' To boast with receipt. '받았다고 자랑 한다' To jump. '팔짝 뛰다' | | |
| | 8 | | To smile. '웃는다' To screw over with sarcastic comments. '잘됐다고 놀려준다' | | |

전략($Z=-4.62, p<.001$), 회피억제 전략($Z=-2.90, p<.01$), 대안 추구전략($Z=-2.51, p<.01$), 부적절한 반응($Z=4.9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아동은 정서를 조절하기 위하여 전략을 사용하여 대처하는 반면 학대받은 아동은 정서를 조절하지 않고 부적절한 반응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서조절 전략과 부적절한 반응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able 6>에 빈도를 나타내었다. <Table 6>과 같이 일반아동은 적극적 전략(68.38%)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회피억제 전략(16.91%), 대안추구전략(9.56%), 부적절한 반응(5.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대받은 아동은 정서를 조절하지 않고 부적절한 반응(74.26%)을 주로 하며 정서조절을 하는 경우 적극적 전략(22.79%)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회피억제 전략(2.21%)과 대안추구전략(0.74%)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의 반응 특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1) 학대받은 아동

학대받은 아동은 가장 많이 응답한 부적절한 반응(74.26%)을 <Table 7>과 같이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Table 7>과 같이 학대받은 아동은 부적절한 반응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인 정서에서는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의 응답이 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정서에서는 정서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대받은 아동의 응답 중 특이한 부분은 2명·3명이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반복적으로 하여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

Table 8. Example for Response on Emotional Regulation Strategy of General Children

| Situation | Positive Strategy | Inhibitory Avoidance Strategy | Alternative Strategy |
|------------------|---|--|--|
| Negative Emotion | 1 To advise friend despite of angry. '화나지만 친구에게 이야기하거나 충고 하겠다' To whisper not to say. '조용히 말하지 말라고 한다' | To bear. '참겠다' | |
| | 3 To say 'give better present.' '다음에 더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말한다' To say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한다고 말한다' | To bear with silence. '참고 조용히 있겠다' Not to mind. '그냥 신경쓰지 않는다' | |
| | 5 To ask 'where found it.' '어디서 났는지 물어 본다' To try to talk. '가서 말을 걸어본다' To ask to a friend. '친구에게 물어 본다' | | |
| | 7 | To say 'OK' and clean the cloths. '괜찮다고 하며 옷을 닦는다' | Just to smile. '웃어 넘긴다' To phone to bring the clothes. '전화해서 옷을 가져다달라고 한다' To say teacher and change the clothes. '선생님께 말하고 옷을 갈아입고 온다' |
| | 2 | To do nothing happened.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한다' | |
| | 4 | | |
| | 6 | To be pleased with silence. '조용히 속으로 좋아한다' To get it and walk in. '받고 조용히 들어간다' | To give friends small present.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해준다' |
| Positive Emotion | 8 To hold and make them stand. '손을 잡아 일으켜준다' To ask 'OK.' '괜찮은지 물어 본다' | To keep still. '가만히 있다' To pretend not to know. '모른 척 한다' To leave. '자리를 피한다' | To keep doing sports. '하던 체육을 계속한다' |

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반아동이 회피억제 전략을 사용하여 '참겠다, 그냥 가만히 있겠다'라고 반응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두 반응 모두 표면적으로는 아동들이 아무렇지 않게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학대받은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거나 반응하지 못하여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일반아동

일반아동은 정서조절전략을 적절히 사용(94.85%)하였으므로 반응빈도가 높은 적극적 전략(68.38%), 회피억제 전략(16.91%), 대안추구전략(9.56%)의 응답내용을 <Table 8>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아동들은 상황에 적절하게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황에 따라 적극적 전략,

회피억제 전략, 대안추구전략을 다르게 사용하였다.

2) 정서조절동기

<Table 9>와 같이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 중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한 아동의 정서조절동기를 Mann-Whitney U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친사회적동기($Z=-3.65, p<.001$), 자기보호적동기($Z=-4.46, p<.001$), 규범적동기($Z=-4.19, p<.001$), 부적절한 동기($Z=-5.05,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아동은 정서를 조절할 때 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전략을 사용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반면 학대받은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부적절한 동기로 인해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able 10>에 빈도를 나타내었다. <Table 10>과 같이 일반아동은 친사회적동기(37.50%)를 가장

Table 9. Comparison of Motivation of Emotional Response as Abused Children and General Children

| Category | | N | Mean Rank | Rank sum | Mann-Whitney U | Z |
|---------------------------------|------------------|----|-----------|----------|----------------|----------|
| Prosocial Motivation | Abused Children | 17 | 11.35 | 193.00 | 40.00 | -3.65*** |
| | General Children | 17 | 23.65 | 402.00 | | |
| Motivation of Self-Preservation | Abused Children | 17 | 10.12 | 172.00 | 19.00 | -4.46*** |
| | General Children | 17 | 24.88 | 423.00 | | |
| Normative Motivation | Abused Children | 17 | 10.62 | 180.50 | 27.50 | -4.19*** |
| | General Children | 17 | 24.38 | 414.50 | | |
| Inappropriate Motivation | Abused Children | 17 | 25.97 | 441.50 | 0.50 | -5.05*** |
| | General Children | 17 | 9.03 | 153.50 | | |

*** $p < .001$

Table 10. Frequency of Motivation for Emotional Response

(N=17, Unit: person, %)

| | Prosocial Motivation | | Motivation of self-preservation | | Normative Motivation | | Inappropriate Motivation | |
|-------------|----------------------|------------------|---------------------------------|------------------|----------------------|------------------|--------------------------|------------------|
| | Abused Children | General Children | Abused Children | General Children | Abused Children | General Children | Abused Children | General Children |
| Situation 1 | 1(5.88) | 2(11.76) | | 7(41.18) | 1(5.88) | 4(23.53) | 15(88.23) | 4(23.53) |
| Situation 2 | 5(29.41) | 14(82.35) | | 2(11.76) | | | 12(10.58) | 1(5.88) |
| Situation 3 | 2(11.76) | 5(29.41) | | 4(23.53) | 1(5.88) | 8(47.06) | 14(82.35) | |
| Situation 4 | 2(11.76) | 15(88.24) | 1(5.88) | 1(5.88) | | 1(5.88) | 14(82.35) | |
| Situation 5 | 1(5.88) | 1(5.88) | 1(5.88) | 4(23.53) | 3(17.65) | 11(64.71) | 12(10.58) | 1(5.88) |
| Situation 6 | | 5(29.41) | | 10(58.82) | | 1(5.88) | 17(100.0) | 1(5.88) |
| Situation 7 | | 1(5.88) | 5(29.41) | 12(70.59) | 2(11.76) | 4(23.53) | 10(58.82) | |
| Situation 8 | 7(41.18) | 8(47.06) | | 5(29.41) | | 3(17.65) | 10(58.82) | 1(5.88) |
| Total | 18(13.24) | 51(37.50) | 7(5.15) | 45(33.09) | 7(5.15) | 32(23.53) | 124(91.17) | 8(5.88) |

Table 11. Example for Inappropriate Motivation of Abused Children

| | Situation | Motivation focus on emotion | Motivation for blame others and situation |
|------------------|-----------|--|---|
| Negative Emotion | 1 | Due to anger. '화나니까' Due to annoyance. '짜증나니까' | |
| | 3 | Due to anger. '화나니까' Due to annoyance. '짜증나니까' | |
| | 5 | Due to anger. '화나니까' Due to annoyance. '짜증나니까' | Due to taking mine. '내 것을 가져갔으니까' |
| | 7 | Due to anger. '화나니까' Due to annoyance. '짜증나니까' | Due to mocking me. '날 보고 비웃으니까' |
| Positive Emotion | 2 | Due to perfect score first time. '처음 100점 맞아 보니까' Due to pleasure. '좋으니까' | |
| | 4 | Due to pleasure. '좋으니까' | |
| | 6 | Due to pleasure. '좋으니까' | |
| | 8 | Due to well done. '잘 됐으니까' Due to bitter smile. '고소하니까' | |

Table 12. Example for Response on Emotional Regulation Motivation of General Children

| | Situ-ation | Prosocial Motivation | Motivation of self-preservation | Normative Motivation |
|------------------|------------|---|--|---|
| Negative Emotion | 1 | To be worse friendship not to do. '그렇지 않으면 친구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 Because they reveal my secret again. '또 다시 내 비밀을 말할까봐' | Because fighting with friends is bad. '친구끼리 싸우는 건 나쁘니까' |
| | 3 | Not to break mood at friend's birthday. '친구 생일에 기분을 망치면 안되서' | | |
| | 5 | | Because I can find my things without anger. '화내지 않아야 내 물건을 찾을 수 있으니까' | Because doubt is bad. '남을 함부로 의심하면 나쁘니까' |
| | 7 | | Because my feeling is worse. '내 기분이 더 나빠지니까' | |
| Positive Emotion | 2 | Because friend is sad. '친구가 슬퍼하니까' | | |
| | 4 | Because we are friends. '친구이니까' | Because friends say something in case not to do that. '안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니까' | Because I help them who have hard time.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니까' |
| | 6 | Because friends are sad. '친구들이 슬퍼하니까' | Because friends hate me. '다른 친구들이 나를 미워할까봐' | Because it is no good to pleasure myself. '나만 즐거워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니까' |
| | 8 | | | Because it is no good to pleasure someone's unhappiness. '남이 안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은 나쁜 것이니까' |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보호적동기(33.09%)와 규범적동기(23.53%)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받은 아동 또한 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친사회적동기(13.24%), 자기보호적동기(5.15%) 그리고 규범적동기(5.1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대받은 아동(91.17%)은 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 학대받은 아동

학대받은 아동의 동기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응답한 부적절한 동기(91.17%)의 내용을 <Table 11>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11>과 같이 학대받은 아동들은 감정에 초점을 맞추거나 상황과 타인의 탓을 하는 것과 같이 부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아동

일반아동은 가지고 있는 동기를 친사회적동기(37.50%), 자기보호적동기(33.09%), 규범적동기(23.53%)로 응답내용을 <Table 12>와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12>와 같이 일반아동들은 상황에 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정서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지능을 비교하여 그들의 정서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고 실제 정서유발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과 동기를 가지고 정서를 조절하는지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살펴봐왔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받은 아동은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에서 모두 일반아동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아동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Salovey & Mayer, 1990)에 의한 학대가 아동의 정서지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타인의 정서를 적절히 인식하는데 어려움(Pollak et al., 2000; Hwang, 2006; Kim, 2009)이 있을 뿐 아니라 정서를 조절하여 표현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정서 발달이 부모자녀관계 속에서 시작(Salovey & Mayer, 1996)되며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이 아동의 정서에 영향(Gottman & Katz, 1989; Park & Park, 2002; Chae, 2010)을 주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에 의한 학대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서지능이 대인관계 뿐 아니라 학업 및 직장생활 등 아동의 인생 전반에 걸쳐 중요한 요소(Salovey & Mayer, 1990)인 만큼 학대로 정서지능의 발달이 저해된 아동들이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학대받은 아동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정서지능 발달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이 정서유발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지를 확인하여 그들의 정서조절전략을 분석한 결과 일반 아동이 정서조절전략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에 비해 학대받은 아동은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이 낮은 것(Mash, Johnston, & Kovitz, 1983)을 알 수 있었다. 학대받은 아동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반응, 정서를 조절하지 않고 상황에 부적절하게 그대로 드러내는 반응, 보복하겠다는 반응과 같은 독특한 특성이 나타났다. 학대받은 아동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서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지 못하여 역기능적으로 반응(Shields & Cicchetti, 1998)함으로써 학대의 후유증으로 거론되는 공격성(Choi, 1989)이나 부적응 행동(Kim, 1994)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학대받은 아동의 부적응 문제에 집중하여 그들의 공격성이나 부적응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특성을 학대의 후유증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학대받은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점을 발견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는 학대받은 아동들의 부모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대처하기 보다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충동적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아동들이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을 익히거나 사용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처럼 학대받은 아동들은 가정에서 정서조절과 관련된 경험을 하지 못함으로써 가정 밖의 정서를 조절해야할 상황에서도 강압적이거나 보복하는 반응 또는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는 반응 등으로 정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조절동기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일반아동이 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학대받은 부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주로 가지고 있는 동기는 두 가지로 자신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타인과 상황을 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받은 아동이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우선 정서에 초점을 맞춘 동기는 심리적 부적응을 보이는 사람이 자신의 정서에 초점을 맞추어 대처한다는 Folkman(1984)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써 학대받은 아동은 정서조절결과를 기대하고 동기를 조절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의 정서적 경

감(Runtz & Schallow, 1997)을 하기 위한 반응을 주로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학대받은 아동들의 부모가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녀를 학대했던 것과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 스스로 학대를 받으며 많은 부정적인 정서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작은 정서 자극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집중하여 정서를 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서조절에 있어서 상황 자체보다 인지적 평가가 더 중요한데(Quiggle et al., 1992) 학대받은 아동들은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평가(Crick & Dodge, 1996)하여 상황을 외부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조절해야한다고 느끼지 못함으로써 정서를 조절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돌봄을 받아야할 부모에게서 받은 학대로 인해 아동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정서능력 뿐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 정서적 능력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정서조절능력의 부족이 확인된 바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인 아동의 수가 적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더 많은 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학령기에 정서발달이 급격히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하여 연구대상의 연령의 폭을 작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수가 적어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없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대와 관련된 변인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대 유형, 기간, 행위자와의 관계와 같은 변인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지능과 더불어 실제 상황에서 활용되는 정서조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학대받은 아동의 응답 중 '모르겠다'는 반응을 주로 보이는 아동들이 있었다. 이러한 아동들의 경우 정서지능의 다른 하위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최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능력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토대로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넷째, 본 연구는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적 능력의 차이를 밝혀 학대로 인해 아동의 정서적 능력이 저해되었으며 정서조절에서 전략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이 실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서적 특성들이 실제 상황에서 대인관계나 학교적응 등 학령기 아동에게 중요한 과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연구로서는 드물게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지능 및 정서조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는 이제껏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연구가 심리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되어있던 것에서 벗어나 학대받은 아동들이 어떠한 정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정서지능질문지를 통해 나타난 일반아동과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지능에서 차이를 발견하는 것과 더불어 면접을 통해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세부적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학대받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행동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정서적 능력과 실제적인 정서조절 전략 및 동기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학대받은 아동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능력을 고려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지능 및 정서조절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대받은 아동의 정서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REFERENCES

-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Cassidy, J., Parke, R. D., Burkovsky, M. L., & Braungart, J. M.(1992). Family-peer connection: The role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hae, Y.(2010). Young children's emotion control & social ability according to parenting attitude.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13, 117-132.
- Choi, Y.(1989). *Aggression and empathy in the abused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Cole, P. M., Zahn-Waxler, C., & Smith, K. D.(1994). Expressive control during a disappointment: Variations related to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835-846.
- Crick, N. R. & Dodge, K. A.(1996).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3), 993-1002.
- Davis, T.(1996). Gender differences in masking negative emotions: Ability or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1*, 660-667.
- Egeland, B., Breitenbucher, M., & Rosenberg, D.(1980). A prospective study of the significance of life stress in the etiology of child abuse. *Journal of Clinical and Consulting Psychology, 48*, 195-205.
- Ekman, P. & Friesen, W.(1975). *Unmasking the fa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Folkman, S.(1984). Personal control stress & coping process: A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6*, 839-852.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Books.
- Gottman, J. M. & Katz, L. F.(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 Psychology, 25*(3), 373-381.
- Han, E.(2004). Children's motive and competence for emotional regulation an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3), 65-77.
- Han, E.(2005). Emotion regulation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nd peer relationships in school-age children.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26*(4), 85-100.
- Han, E.(2006). Affective predictors of school-age children's aggression and peer relationship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5), 1-15
- Hart, S. N., Germain, R. B., & Brassard, M. R.(1987)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and youth*. N.Y.: Pergamon Press
- Hwang, E.(2006).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scious affects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children's abusive exper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Hwang, H.(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motion intelligence and emotional & behavioural problem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3*(1), 67-84.
- Hubbard, J. A. & Coie, J. D.(1994). Emotional correlate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
- Jang, M. & Lee, J.(2011). Effects of mother attachment,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al regulation o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4*(1), 35-53.
- Kang, J.(2000).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body image and stress coping sty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Kempe, C. H.(1962), The battered child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81*(July), 17-24.
- Kim, E.(2008). *The recognition of facial emotion and attributional bias influenced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abus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 Kim, G.(1993). The influence of child abused on children's aggress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1*(1), 85-100.
- Kim, H.(1994). *The relation between verbal aggression by parents and children's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H. & Kim, Y.(2009). Socio-demographic variables, family emotional environment, maternal discipline style, & school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3). 145-158.
- Kwon, Y.(2002). *Children's social competence : effects of emotionality,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trategies, and maternal behaviors during mother-child inter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Kurtines, C. A.(1989). Developing self-esteem and creativity in the preschool chil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ami.
- Lee, J. & Moon, H.(2008).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on children's peer competence.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29*(4), 1-14.
- Lim, H. & Park, S.(2002). Child's sex, temperament,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parenting as related to child's emotion regulation. *Child Studies in*

- Diverse Contexts*, 23(1), 37-54.
- Lim, Y.(2002). Children's peer competence in relation to maternal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40(1), 113-124.
- Main, M. & Goldwyn, R.(1984). Predicting rejection of her infant from mother's representation of her own experience: Implication for the abused-abusing intergenerational cycle. Special Issue: Infant mental health from theory to intervention. *Child Abuse & Neglect*, 8, 203-217.
- Mavroveli, S., Petrides, K. V., Rieffe, C., & Backer, F. (2007).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eer-rate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5, 263-275.
- Moon, Y.(1996). *Measuring emotional intelligence in Korea*. Sejong Culture Publishing. Korea.
- Park, E.(2008). *Development of the emotional regul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familial abused runaway youth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Seoul.
- Park, H. & Park, S.(2002). Father's parenting behavior, son's emotional regulation as related to son's agg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8), 87-98.
- Pervin, L. A.(1996). *The science of personality*. N.Y.: Wiley.
- Pollak, S. D., Cicchetti, D., Hornung, K., & Reed, A.(2000). Recognizing emotion in faces: Developmental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Developmental Psychology*, 36, 679-688.
- Quiggle, N., Garber, J., Panak, W., & Dodge, K.(1992).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1305-1320.
- Saarni, C.(1984). An observational study of children's attempts to monitor their exp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1504-1513.
- Saarni, C., Mumme, D. L., & Campos, J. J.(1998). Emotional development: Action,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pp. 237-309)*. N.Y.: Wiley.
-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hields, A. & Cicchetti, D.(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381-395.
- Straus, M. A.(1991) Verbal aggression by parents and psychosocial problem of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5, 223-238.
- Underwood, M. K., Coie, J. D., & Herbman, C. R.(1992). Display rules for anger and aggression in school-age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66-380.
- Underwood, M. K.(1997). Peer social status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expression and control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3, 610-634.

접수일 : 2013년 03월 15일

심사일 : 2013년 04월 08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5월 13일